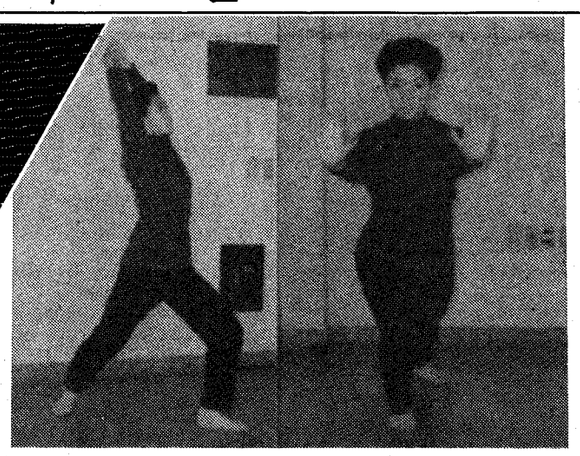
심신의 피로 씻어주는 투쟁의 활력소



◇가슴운동(족쇄끊기)과 팔운동(장벽밀어내기)

문화특집

노동자 체조춤의 의의와 그 소개

동작마다 노동자의 사상·의식 담아 단결고취

억압·굴레 벗어던지는 현실투쟁의 모습 본떠

문화예술은 인간이 사회를 이루어 노동을 하며 살게 된 것과 동시에 발생하였다. 그러나 사회발전과정에서 계급이 분화되면서 예술이 지배계급의 전유물이 되면서 삶과 유리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예술은 고도의 전문화로 발전되기 시작하지만 철저하게 지배계급에 복무하는 예술로 전락하게 된다. 한편 끈끈하게 삶과 밀착되어 발전한 민중들의 예술활동들은 삶의 내용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노동의 리듬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담고 있는 내용이 달라지면서 목적도 달라지게 된다.

현재 대중들이 향유하고 있는 춤들을 살펴보면 그리 많지 않다. 자본주의에 와서는 거의 저속한 대중문화가 판을 치고 있을 뿐이다. 대중문화는 문화적 대중매체라는 기술적 수단의 급속한 발달과 자본주의 문화산업에서의 자본 집중의 토대 하에서 전개된 것이다. 디스코가 매스콤을 통해 전파되고 실질적인 유흥업소가 자리잡게 되면서 대중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된 것이다.

대중문화는 사회적 안정, 미래에 대한 확신, 의미 충만한 삶, 개인적인 행복들에 대한 조작되고 변형된 욕구들 뿐만 아니라 종종 불필요한 욕구들과도 결합되어 있으며, 바로 이렇게 욕구들을 포착함으로써 조작되어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과는 다른 경로이지만 건강한 민중문화가 우리 역사속에 버젓이 있다. 자본주의 대중문화와는 그 내용과 질이 상이하다. 과거 우리 선조들이 지배계급에게 착취 당하고 핍박받던 시절속에서 느꼈던 감정, 생각들을 아마추어적으로 만들어 그들의 생활을 표현하는 문학예술 활동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현실은 계속적으로 우리들의 정신과 육체를 찌들게 하고 착취를 더해 가고 있다. 우리는 욕구적으로 이를 해소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춤인 디스코, 사교춤 등이 나름대로의 박자와 몸놀림을 갖추고 있으면서 생활속에서 쌓인 긴장과 피로를 풀고 또 잊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과 무관한 춤은 현실 앞에서 노동자를 무기력하게 하고 우리들자신의 사상과 정서를 갉아먹게 한다. 그만큼 우리들이 생활에서 접하는 문화예술, 춤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시대에 우리가 추어야 할 춤은 우리를 옭아메고 있는 모든 억압과 굴레에서 벗어나 역사를 발전의 주체로 서게 하고, 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할 수 있도록 단결을 고취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기존에우리들 곁에 있는 던 춤, 예컨대 디스코와 같은 춤들은 현실을 잊게 하고 그것으로부터 도피하게 만든다. 그러나 정작 큰 문제는 디스코를 추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대체할 만한 춤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이제 우리들의 삶과 정서에 밀착된 건강한 오락춤을 개발하고 추어야 할 것이다.

이번 91 노동자 체조춤은 집단체조춤(집체춤)의 형식을 빌은 것이다. 집체춤은 집단이 함께 추며 단결을 고취하는 춤이며, 노동자의 단결과 사상을, 노동자의 투쟁과 정서를 담아내는 춤이다. 다른 한편으로 집체춤은 춤을 추는 노동자 대중의 정신과 육체의 건강함을 목표로 갖고 있다. 함께 모여 춤을 춘다는 것은 오락춤처럼 단지 한장소에서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한 집단이 하나의 사성과 정소로 통일될 때 의의가 있다. 노급의 상상으로 일치시킬 수 있는 춤은 우리의 정신을 건강하게 만든다. 또한 노동자춤을 을 추면서 몸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만든다. 집체춤이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고 해서 체조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구령에 맞추어 팔 다리를 접었다 폈다 하면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하나의 몸동작에 우리의 사상과 정서를 담아 표현하면서 춤을 추는 것이므로 실제적으로 이러한 춤이 필요한 때가 있다. 즉 일상적으로 추어져 정신과 육체를 건강하게 할 뿐 아니라 투쟁의 장기화 속에서 지친 심신을 달래는데 있어 그 효과는 대단하다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토론과 결의를 모아내기가 힘들때 언제 어디서나 함께 모인 동지들끼리, 전체 조합원이 모인 집회에서 모두가 함께 추는 집체춤은 문화예술적인 즐거움을 느끼게 하면서도 투쟁의지를 다져내고 지친 심신을 풀어 주어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이다.

이번 91노동자 체조춤의 구성을 보면 각 신체별 운동을 기초로 해서 이러한 운동적 요소에 감정 및 정서를 표출하는 춤적 동작으로 만들었다. 팔운동으로 시작하여 무릎운동, 다리운동, 몸통운동, 가슴운동, 등배운동, 뜀뛰기, 숨쉬기, 마지막 걷기로 끝난다. 이러한 동작에 담겨지는 주요한 정서는 투쟁의 의지를 다져내 그속에서 노동자계급의 전진과 동지애를 느끼고 이러한 감정을 모아 적을 향하여 당당하고 여유있게 맞서는 모습을 담아낼려고 했다.

동작별로 보면 팔운동은 우리를 전진하지 못하게 가두었던 수많은 장벽들을 힘겹게 밀어내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다리운동에서는 무게중심을 아래로 두어 순간적인 율분을 누르고 냉정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담아냈고, 몸통운동에서는 자유를 향한 투쟁의 몸짓을, 가슴운동에서는 당당히 가슴을 들고 두팔을 높히 쳐들어 적들이 채운 족쇄를 끊어 내는 모습은 형상화했다. 정리단계인 숨쉬기에서는 노동해방의 주역인 모습을 당당히 드러내고, 끝으로 함께 손을 잡고 걸으며 우리 모두가 같은 노동자계급임을 확인하면서 끝낸다.

집체춤을 출때는 감정과 정서 표출에 집중하여 어색함과 긴장감을 풀어내고 동작에 대해서는 호흡과 근육의 움직임에 대한 정확성에 유의하여 가볍고 부드럽게 하여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집체춤은 우리들 스스로가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춤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이 만들어 가야 하는, 또 만들어 가고 있는 우리들의 춤은 노동자계급을 역사의 주인으로 서게하고 우리의 투쟁을 풍요롭게 하고 또 이러한 계기를 통해 우리들 스스로 우리 자신의 문화예술을 강조하고 향유할 수 있게 하는 매우 뜻깊은 일이 될 것이다.

김옥희
〈춤패 '불림'회원〉

□강종열 화백 아홉번째 개인전 열어

화백 강종열씨의 제9회 개인전이 금호미술관에서 지난 8월30일부터 시작하여 오는 5일까지 계속된다.

주로 '바닷가 이야기'를 그리는 강화백은 진솔하게 살아가는 어부들의 모습, 무심코 지나쳐 버릴수도 있는 선창가, 낡은등대등의 모습에서 진실한 삶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그림의 의도를 밝힌다.

강종열씨는 1951년 경남 진해 출생으로 여수로 이사해 바닷가의 모습들을 그려왔다. 1975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91년 아홉번째 개인전을 갖는 강화백은 바다와 어부들의 이야기를 그리며 반골처럼 지역문화의 오늘날을 지켜오고 있다. 〈문의:720-5866~7〉

문화단신

□극단 '태' '머니머니' 선보여

극단 '태(胎)'는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매일 오후5시30분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제9회 정기공연작품 '머니 머니'를 무대에 올린다.

'머니 머니'는 한 대학생이 집안의 가난을 아버지 개인의 무능력으로 바라보다가, 개인이 아닌 사회의 구조적 모순임을 자각하면서 변혁운동에 뛰어든다는 내용이다.

이 작품은, 일상적 일이 연극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무대극이 민족극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해야 하는가를 규명하고자 권기현(신방과·88)씨가 기획하였다.

이번 작품은 가정대·정경대학생회의 후원으로 공연된다.

□여인극장 '화분이 있는…' 공연

극단 여인극장(대표 강유정)은 오늘 부터 8일까지 낮 4시30분, 저녁7시30분(단, 첫날 낮공연은 없음)문예회관 대극장에서 〈화분이 있는집 사람들〉을 공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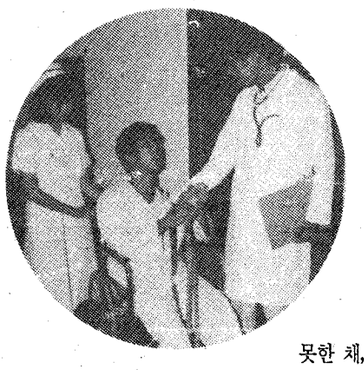
박재홍씨의 원작을 강유정씨가 연출한 〈화분이 있는집 사람들〉은 오늘날 대부분의 도시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문제와 직장문제를 다루고 있다.

도시서민들이 느끼는 꿈의 좌절과 성취의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사실주의적 방법으로 접근하는게 이 작품의 특징이다.

또한 〈화분이 있는집 사람들〉은 제15회 서울연극제의 공식참가 작품으로 선정되었으며 한국연극협회 주최, 문화부, 문예진흥원, 서울시의 후원으로 공연된다.

일렁이는 민중

◇연극평 — 극단 「현장」의 「지금 수술중」



◇극단 「현장」의 열한번째 공연인 「지금 수술중」은 지난 28일부터 예술극장 「한마당」에서 공연되었다

의료민주화 위한 연대의 틀 제시

마당극 의미 살리지 못한 아쉬움 남아

극단'현장'의 열한번째 공연 "지금 수술중"은 병원노조를 중심으로한 환자들의 권익보호투쟁의 모습을 첨삭없이 형상화한 작품이다. 극단 '현장'은 1988년 1월 창단이후 이 땅 노동현장의 진솔한 모습과 그 투쟁의 모습을 생생히 전하여 왔다. 또한 일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본 건강한 문화를 대중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모두 14개의 장면으로 구성되어있는 이 작품은 병원측의 기만적인 선별진료(돈을 척도로 한)의 장면으로 시작한다. 촌지와 재약회사와의 부정거래에 지대한 관심을 쏟는 원장과 원무과장, 권위적이고 형식적이만한 의사, 그리고 숨어서 취사를 해야하는 돈없는 보호자들의 삶의 모습이 그려진다.

이때 간호사 윤혜정의 숙부가 입원하게 된다. 그는 오랫동안 수은을 취급하는 공장에서 일을 했고 검사결과 수은중독이 확실시 되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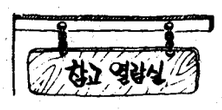
이에 노조는 이 문제를 쟁점화하게 되고, 원장과 원무과장은 은밀히 탄압의 음모를 꾸민다. 이 와중에 조합원인 조무사가 원무과장에게 폭행을 당하게 되고 노조원들은 이에 반발 사복근무, 공청회 시수를 결의한다. 이러한 노조의 집단적 결의와 싸움은 마침내 원무과장의 사과를 받아내는 작은 승리를 안아오고 공청회 사수로 이어지며 막이 내린다.

내용에서 보여지듯이 사회변혁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의료민주화라는 부문에 대한 관심의 유도와, 그 방향에 대한 제기에 이 작품의 성과를 들 수 있겠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지 못해 이에 대한 사례부족과 심도의 약화로 여타의 다른 노동현장 소재의 극들에 비해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작품이 되고 말았다. 양식적인 면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극적 갈등이 부각되지 못한 한계요인과 함께 무대극과 마당극적 형상화 방법이 아무런 조화를 이루지 못한 채, 병치되면서 생기는 어설픔을 지울 수 없었다. 이는 적정하고 깊은 고민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편의를 위한 극의 구성과 형식의 조합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자아냈다. 그리고 의미없는 조명, 인물의 전형화를 위한 것임을 이해하면서도 그 부자연스러움에 관객을 당혹스럽게 하는 과도한 대사의 조(調), 무엇보다도 관객과의 동화를 위해 고안된 장치인 관객과의 대화나 관객의 소도구화가 깊이를 갖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철영〈회계·3〉

패러다임

한시대 지배하는 세계 보는 방식



이 용어는 과학철학자인 토마스 쿤(Thomas.s.Kuhn)이 그의 저서 '과학혁명의 구조'(The Structare of Scientific Revoluton)(1962)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세계를 보는 방식"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 패러다임은 한 시대의 세계관과 그 시대가 과학적인 문제들에 접근하는 방법을 지배한다. 또한 이 세계를 보는 방식은 '과학 공동체의 구성원들만이 공유하는 하나의 특징적인 믿음과 선입견'이며 그 공동체는 이 믿음에 '귀의(歸依)한다. 따라서 쿤에 의하면, 과학의 발전은 '개별적인 발견들과 발명들의 축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학공동체의 '믿음'의 변화, 즉 "패러다임 교체(paradigm shift)"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그는 "과학혁명"이라고 부른다.

쿤의 패러다임 이론은, 언어의 의미를 '사실'의 기술(技術), 즉 인식적 요소에서 찾으려 했던 논리실증주의(Logical Positivism) 검증의 원리를, 인간, 삶의 조건에서 찾으려는 경향으로 대체한 것이다. 이는 비트겐슈타인(Ladwig Wittgengtein)의 가족유사성(family Resemblance)의 이론에 닿아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 비트겐슈타인은 그의 후기 저서 철학적 연구Philosophical Investigation)(1953)에서 '언어에는 본질적 특성이 없고, 다만 여러가지 언어 '사용'들 사이의 가족유사성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언어 사용자의 삶의 형식이 바로 쿤이 말한 과학 공동체의 '세계관' 혹은 '믿음'을 창출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패러다임은 모델, 이념, 규범, 그리고 패라곤(paragon, 전범) 등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하며 어떤 계층의 전형적인 특징이나, 원형(archetype)을 의미하는 Prototype이라는 말과 관련되기도 한다.

1987년에 김명인에 의해 제기된 지식인 문학의 위기론이 이론생산의 차원에서 공소해진 느낌도 있지만, 실제 문학생산담당층의 저변 확대로 인해 우리에게 문학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 것은 일종의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볼수 있으며, 최근 소련의 변화나, 우리사회에 혼재하고 있는 여러 이념적 양식들(리얼리즘,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등도 패러다임의 변화, 혹은 구체적 삶의 문제와 결부되어 그 나름의 전범을 수립해 가는 과정으로 볼수 있다.

한원균 〈대학원 국문학과·석사3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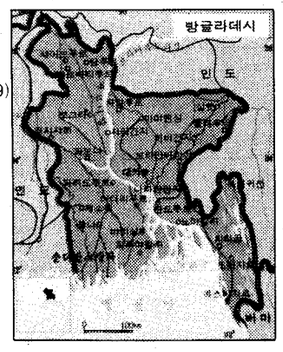
「슈마(SURMA)강의 기적」

방글라데시에 한중의 혼을 심고 있습니다.
주민의 70%가 이슬람교도로 곳곳의 모스크에서 생활을 시작하는 나라, 세계 전체 황마생산의 40%를 생산, 황마의 수출이 나라전체 수출총액의 70%에 달하는 나라. 5월부터 9월까지의 우기에 전국토의 2/3가 침수되고, 건기가 끝날 무렵에는 '사이클론' 이라 불리는 벵골만 태풍이 내습하는 나라.
1년에 3모작의 벼농사로 농업이 국내총생산의 55%에 달하지만 해마다 100만톤에 달하는 식량을 수입하는 나라. 그러고도 잦은 홍수에 따른 농산물의 피해와 과밀한 인구로 식량부족에 허덕이는 나라— 방글라데시. 지구상의 최빈국 방글라데시에도 한중인들은 땀과 노력으로 우리의 정신을 심고,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중인이 일으켜야할 땅
50톤이나 되는 시멘트 원료분쇄기(RAW MILL)를 중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순수한 인간의 힘으로 하역해서 운반하는 곳 — 방글라데시.
같은 시대에 살면서도 첨단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과거의 땅 방글라데시에서도 기적을 낳는 한중인들의 땀과 노력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차탁(CHHATAK)에 연산 26만7천톤의 시멘트 공장이 한중인들의 손에 의해 지어지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을 감탄케한 한중인의 열정
장기간의 피지배 생활과 뿌리깊은 카스트제도의 구습으로 외부인들을 좀처럼 신뢰하지 않는 방글라데시 사람들—.
밤을 밝혀 그들의 2배에 가까운 시간을 일하는 한중인들의 모습이 그들을 변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한중인을 보고 감탄했고, 마침내 한중인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슈마강변의 기적— 한중인의 손으로 !
시멘트공장의 천혜의 입지조건을 갖춘 슈마(SURMA)강은 원료수송과 완제품출하의 중요한 몫을 담당합니다. 잡초로 뒤 덮힌 땅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들어서고 그 위에 심장박동만큼이나 힘찬 기계 소리가 슈마강변에 울려퍼질 때까지 한중인의 땀과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중공업(주)

방글라데시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印度 亞大陸)의 북동부에 있는 나라. 면적 14만2,776㎢. 인구8,560만, 인구밀도 598.6인/㎢(1979) 수도는 다카 정식명칭은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Gonoproja Tantri Bangladesh)이며, 영어로는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라 한다. 남쪽은 버마에 접해있고, 남쪽은 벵골만에 면해 있는데, 방글라데시란 〈벵골의 나라〉라는 뜻이다. 1947년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로는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의 동(東) 파키스탄 주(州)를 형성하고 있었으나 71년 3월 26일에 파키스탄으로부터 분리·독립하였다.